

2013 프로야구 3월 30일 개막 ... 올 시즌 관전 포인트

‘예비 FA’ 윤석민·이용규 KIA 우승 이끌까

새해 프로야구 9구단 시대의 막이 오른다. 올해로 32번째 시즌을 여는 2013 프로야구는 1991년 이후 22년 만에 9번째 구단인 NC 다이노스가 1군에 진입하면서 9구단 체제로 운영된다.

◇홀수팀 체제, 치열해지는 머리싸움
올 시즌 프로야구 9개 팀은 팀당 16차전씩 128경기를 치른다. 지난해 133경기에서 5경

‘특정팀에 너무 불리한 일정이다’고 반발하면서 KBO는 일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KIA, 개막전 연패 탈출할까?

2013 프로야구는 3월30일 개막전을 갖고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올 시즌 개막전은 2011년도 최종순위에 따라 1~5위, 2~6위, 3~7위, 4~8위 팀이 서로 맞붙는다.

4위로 2011년을 마감했던 KIA는 8위팀

해 한화의 지휘봉을 잡았다. ‘우승 청부사’로 통한 김응용 감독이 초호화 코칭스태프를 앞세워 약체 한화의 대약진을 이룰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넥센에서 롯데 감독으로 새 출발하는 김시진 감독은 롯데의 우승 갈증을 풀기 위한 도전을 앞두고 있고, 넥센은 코치에서 승격된 염경엽 감독을 앞세워 2013시즌을 맞는다. 개막전에서 넥센과 KIA가 맞붙는 만큼 염경엽 감독은 광주일고 선배 선동열 감독을 상대로 감독 데뷔전을 치른다.

◇FA 대어, 대박을 꿈꾼다

FA(자유계약)를 앞두고 있는 대어들의 활약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KIA에서는 윤석민과 이용규가 2013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게 되며 오승환·장원삼(이상 삼성), 정근우·최정(SK), 강민호(롯데) 등이 예비 FA로 2013시즌을 보낸다.

특급 선수들이 대거 FA를 앞두고면서 이들의 성적이 팀 성적과 직결될 전망이다.

50여 쪽팻을 터트린 김주찬을 통해 불붙은 FA 몸값 전쟁은 올 시즌이 끝난 후 스포츠 리그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대화 2군 감독을 영입하며 ‘명가재건’을 노리고 있는 KIA는 4일 투수조 훈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3시즌 일정에 돌입한다. 7일 합동훈련이 시작되며 이후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오키나와에 캠프를 차리고 3월5일까지 담금질을 이어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NC 가세 9구단 체제 ... 일정 바뀌어 성적 변수

KIA, 넥센과 광주 개막전 ... 8연패 사슬 끊을까

돌아온 코끼리 김응용 감독 한화 대약진 관심

기가 줄었다. 전체 경기 수는 NC의 가세와 함께 532경기에서 576경기로 늘었다.

8개팀이 2~3연전을 벌이는 동안 한 구단은 경기를 쉬어간다. 전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순위 싸움의 새로운 변수다. 특히 효율적인 선발 로테이션이 관건이다. 휴식기를 앞두고 마운드 총력전을 벌이며 승수를 쌓을 수 있지만, 장마철에는 예상외의 긴 휴식으로 인한 마운드의 컨디션 난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정이 전력 운용에 중요한 키가 되면서 2013시즌 정규리그 일정을 놓고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11월30일 발표한 일정을 놓고 롯데 등 일부 구단이

넥센과 안방에서 개막 2연전을 치른다. 대구(삼성-두산), 문학(SK-LG), 사직(롯데-한화)에서도 개막전이 펼쳐진다.

‘호랑이 군단’의 개막전 연패 탈출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KIA는 2005년 한화전을 시작으로 지난해 SK와의 개막전에서도 패를 기록하면서 개막전 8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시즌 처음으로 만나는 넥센에는 KIA를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이강철 수석 코치가 버티고 있는 만큼 흥미로운 승부가 예상된다.

◇새 사령탑, 누가 였나

새내기 NC의 1군 도전과 함께 새 사령탑들의 우승 도전도 2013시즌의 관심사다.

김응용 감독이 8년 만에 그라운드로 복귀

K리그 확 달라진다

승강제 본격 시행 ... 광주 FC는 2부리그서 출발

출범 30주년을 맞은 K리그가 확 달라진다. 2013년은 프로축구가 출범한 지 30주년 이 되는 해이다. 출범 30주년을 맞아 프로축구연맹은 ‘프로축구 레전드 베스트11 대국민 투표’, ‘프로축구 출범 30주년 기념 리셉션 및 비전 선포’, ‘한국프로축구 30주년사 발간’, ‘프로축구 30주년 기념 올스타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올 시즌은 프로 스포츠 최초로 1부리그와 2부리그를 갖춘 승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이기도 하다.

◇프로스포츠 최초의 승강제 본격 시행
= 2013년은 프로축구 1부리그와 2부리그 출범 원년이다. 지난해 광주 FC와 상주 상무의 강등이 확정되면서 올 시즌에는 14개 팀으로 1부리그가 꾸려진다.

2부리그에서는 광주, 상무와 함께 고양 HiFC, 부천FC1995, 수원FC, FC안양, 충북 충주함평FC, 경찰축구단이 각축을 벌이게 된다.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1부리그 하위 2개 팀이 추가로 2부로 강등되며 12위 팀도 1부 잔류를 위해서 2부 우승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한다. 최대 3개팀이 강등의 운명을 맞을 수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3일 런칭 행사를 통해 1부리그와 2부리그의 새로운 이름과 리그를 상징하는 엠블럼을 발표한다.

◇유소년 육성 위한 23세 이하 엔트리의 무 포함
= 유소년 선수 육성을 위한 제도가

도입돼 경기 출전 엔트리에 23세 이하 선수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유소년 클럽 시스템 활성화와 유망주 조기발굴을 위해 신설된 엔트리 규정이다. 내년 시즌에는 2명 등록, 2015년부터는 엔트리 2명 등록에 의무출전 1명으로 제도가 확대된다.

각 구단의 유소년 클럽도 연령별로 세분화된다. 12세, 15세, 18세 이하 유소년팀이 의무적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2014년까지 10세 이하팀이 신설된다. 유망주 조기발굴과 초등학생 축구 꿈나무의 연령별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1~2부 구단 공통 의무사항이다.

◇신인선수 자유선발제 확대와 수익금 처분 분배
= 2013시즌에는 구단이 자유선발할 수 있는 선수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지난 드래프트에서 자유선발로 1명의 선수를 낙점한 구단들은 2014 신인의 경우 2명을 자유선발한다. 2015 드래프트에서는 3명을 자유선발로 선택하며 2016년 신인부터는 드래프트제 대신 자유선발만으로 새 얼굴을 뽑는다.

구단들의 마케팅 경쟁을 위해 연맹 사업의 수익금이 차별 지급된다. 기존에는 연맹 사업 수익금이 100% 균등 지급됐지만 50% 균등, 50% 관중 차등 지급으로 바뀐다. 구단간 마케팅 경쟁을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방침이다. 스포츠프로 수익금은 1:2 부 모든 팀에 균등 분배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효과’ 다저스 구단 랭킹 4위

추신수 합류 신시내티 5위

‘괴물 투수’ 류현진(26·사진)이 입단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미국프로야구(MLB) 구단 랭킹 4위에 올랐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웹진인 블리처리포트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스포츠리그 결과를 정리해 1일(현지시간) 선정된 구단 파워랭킹에서 다저스를 4위에 올렸다.

다저스 전력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것은 역시 투수 켄 그리핀과 류현진의 영입이다.

블리처리포트는 “류현진까지 가세하면서 다저스는 선발진이 엄청나게 넓어진다”면서 “애런 허렐, 크리스 카푸아노, 테드 윌리 등이 5선발 자리를 다투며, 이들 중 일부는 볼펜에 합류하거나 타격 보장을 위한 트레이드 카드로 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더 좋은 팀들이 있지만, 다저스는 지금보다 향상될 만한 두터움을 갖췄다”고 진단했다.

‘추추 트레이드’ 추신수(31)가 트레이드를 통해 가세한 신시내티 레즈는 다저스에 이어 5위에 올랐다.

블리처리포트는 “힘을 갖춘 훌륭한 리드오프 추신수는 신시내티를 특징적 있는 강팀으로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리처리포트는 “신시내티는 가장 강력한 라인업과 가장 흥미로운 투수진을 앞세워 2013년을 시작한다”고 전망했다.

구단 파워랭킹 1위에는 2012년 내셔널리그 승률 1위에 오른 워싱턴 내셔널스가 선정됐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각각 뒤를 이었다. 미네소타 트윈스는 30개 구단 중 최하위로 지목됐다.

/연합뉴스

“우즈, 올 마스터스 우승할 것”

USA투데이 파격 전망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올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에서 우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신문 USA투데이는 1일 인터넷판을 통해 주요 종목의 2013년 전망을 내렸다. ‘대담한 전망(Bold predictions)’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기사에서 USA투데이는 올해 4월 열리는 마스터스 골프대회에서 우즈가 우승할 것으로 점쳤다.

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로는 더스틴 존슨과 폴라 크리머(이상 미국)가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지키겠지만 2위와의 격차는 줄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신문은 2013년 남미 프로골프의 메이저대회별 챔피언을 예상한 다른 기사에서는 마스터스 우승자로 버바 왓슨(미국)을 거론하기도 했다.

미국프로야구에서는 류현진이 입단한 LA 다저스가 고전할 것으로 이 신문은 전망했다. 다저스와 LA 에인절스, 토론토와 같이 전력 보강을 위해 많은 돈을 쓴 구단들이 힘든 시즌을 보내고 볼티모어와 오클랜드, 워싱턴 등 기존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켜 팀 전력을 구축한 팀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테니스에서는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메이저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하고 무릎 부상으로 고전 중인 라파엘 나달(스페인)은 프



타이거 우즈

랑스오픈과 윈블던을 연달아 휩쓸며 성공적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A투데이는 이밖에 미국프로농구(NBA) 최우수선수에는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의 케빈 듀란트(미국)가 선정되고 자동차 경주의 여성 드라이버 대니카 패트릭(미국)은 네이션와이드 레이스에서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062)525-4835

후원: 한국관광공사 강원권협력단

무궁화호/무박 2일



태백산 눈꽃

하이원 스키장
관도라 탑승 기차여행

출발일

1월 11일/18일/25일/2월 1일
(매주 금요일) 22:00경 광주역 출발

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75,000원

여행코스

태백산 눈꽃 트래킹/ 석탄박물관/하이원 스키장 관광관도라 탑승

정동진 일출

추암 썰매바위/하이원 스키장관도라 탑승 기차여행

출발일

1월 11일/18일/25일/2월 1일
(매주 금요일) 22:00경 광주역 출발

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75,000원

여행코스

태백산 눈꽃 트래킹/ 천제단/ 석탄박물관 하이원스키장 관광관도라 탑승